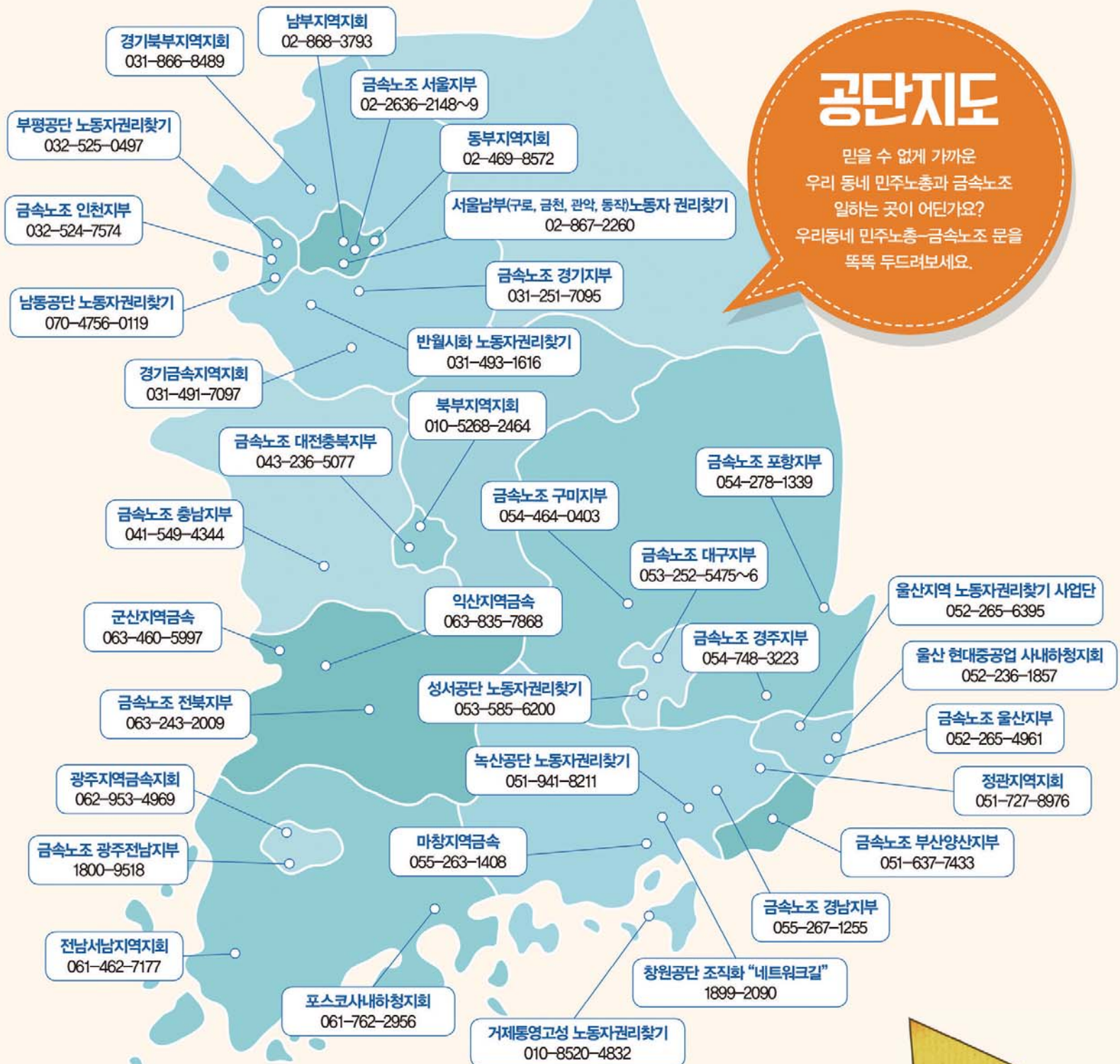




15만 금속노동자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지금!! 만나러 오세요!

권리 함께 누리고 자부심 함께 느껴요. 노동조합의 힘으로 회사의 잘못된 방침과 관행을 바꿀 수 있어요!
노동조합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열린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금속 관련 산업, 기타 제조업, 가입희망자 모두가 가입할 수 있어요. 전국에 280여개 사업장
15만 명 이상이 가입해 한 지붕아래 복작이고 있지요.
자동차, 철강, 조선, 전기전자, 기계금속 사업장 노동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도, 개별노동자도 함께하고 있어요.



조합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금속노조는/노동조합은 나에게 이다.

- ▲ 가족, 친구, 동료, 희망, 정, 삶, 권리, 연대, 여가시간, 회사생활 잘 할 수 있게 하는 곳이다 안 그랬으면 진작 때려치웠다 쓰레기회사, 가입하면 칭찬받을 일
- ▲ 때인 임금 받는 곳, 항상 함께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곳, 같이 열 받아야 하는 곳, 인생의 전환점
- ▲ 내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관점과 시야가 넓어지는 곳, 빨간 날 실 수 있게 해준 곳
- ▲ 회사의 안전벨트, 당당하게 어깨 펴게 만드는 곳, 무엇이든 돌고나가기까 굴삭기다, 함께 힘을 모아서 미래를 변화시키는 곳이다, 믿고 뭉쳐 싸우니까 의리다
- ▲ 사람됨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곳이다, 우리 삶을 투쟁해서 쟁취하는 곳이다,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내려고 하는 패기다
- ▲ 나침반이다, 밧아도 뿌리 뻗는 잔디다,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다, 당당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다.
휴가시간/점심시간 생기고 반장이 반말과 무시 못 하게 하는 곳



부평공단	032-525-0497	광주	062-453-4012
남동공단	070-4756-0119	전남서남	061-462-7177
경기	031-251-7095	대구 성서공단	053-585-6200
안산/시흥	031-491-7097	포항	064-278-1339
서울	02-2636-2148	녹산공단	051-941-8211
서울 구로/금천/관악/동작	02-867-2260	창원공단	0899-2090
의정부/양주/파주	031-866-8489	부산/양산	051-637-7433

- | | | | |
|----|---------------------------|----|----------------------|
| 3면 | 테러방지법 도입 후에 | 6면 | 노동 안전 칼럼 / 이주노동 칼럼 |
| 4면 | 〈단결론〉 두원정공 노동자들의 다시 피어난 꿈 | 7면 | 바지락 선전전에서 만나는 공단노동자들 |
| 5면 | 지역 상담사례 | 8면 | 노동조합 상담안내 |

세계 13위의 경제규모 그러나 노동자·서민 행복지수는 바닥

한국은 선진국 관문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번째 회원국이다. 한국은 OECD 가입 후 세계경제의 흐름에 편승한 시장개방과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노동자·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10대 재벌 현금보유액이 125조원을 기록하는 등 재벌의 공간은 넓쳐나고 있다. 반대로 가계부채는 총 1200조원을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자살률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와 서민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가 항의하는 시민들을 IS테러집단이라고 낙인찍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채우려고 한다. 전 국민 50%가 비정규직의 나락으로 떨어져 법정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게 됐다. OECD 국가 통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치를 살펴보고 노동자·서민의 권리를 향상시킬 방법을 모색해 보자.



OECD 통계에서 한국의 1등 분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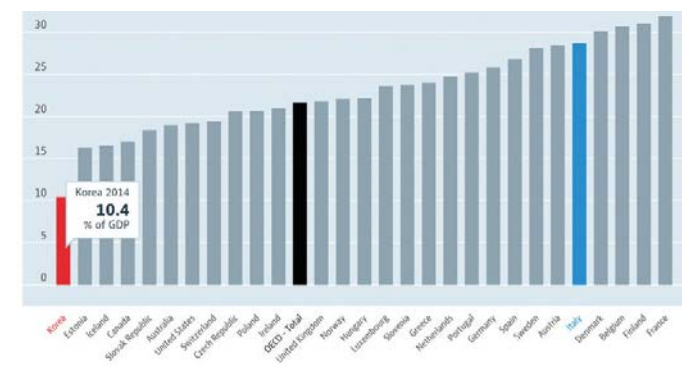
- **산재사망률**: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한국은 비슷한 소득수준인 이스라엘 스페인에 비해 산재사망률이 3배 이상 높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산재 미보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산재사고 미보고 2790건이 적발됐는데 그 중 사망은 1건에 불과하다. 산재은폐 때문에 재해율은 낮지만 사망률이 높은 기형적인 통계가 나온 것이다.
- **남녀 임금격차 13년째 1위**: 한국은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38%의 임금을 더 받아 30개 회원국 중 남녀간 임금차별이 가장 심하다. 한국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가 심각하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해도 남녀간 임금차별이 있다.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줄곧 1위를 다투고 있다.
- **자살률**: 8년 연속 OECD 1위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가 OECD 12.6명인데 비해 한국은 33.3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426명이 자살하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청소년부터 노인층까지 모든 연령층이 높다. 청소년 자살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1~3위를 놓치지 않았다.



- **저임금노동자 비율(임금불평등지수)** : 2010년 기준 OECD 평균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16.3%인데 한국은 25.9%로 압도적 1위다.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비정규직 증가와 맞물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 1년 미만 단기근로자 비중도 38%로 OECD 1위를 지키고 있다.
- **연간노동시간** : 2014년 기준 국가별연간노동시간 1위는 멕시코(2,228시간)다. 한국은 2,124시간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평균인 1,770시간보다 한국사람들은 연 400시간 가량을 더 일하고 있다. 일하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위해 일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한국은 최장시간 노동국가다.
- **노인 빈곤률** :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노인고용률은 최상 위권이지만 노인빈곤률 또한 45.6%로 OECD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연금소득 대체율은 45.2%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지 위해 인생의 황혼기까지 죽어라 일할 수밖에 없다. 노인자살률도 인구 10만 명 당 81.9명으로 OECD 1위를 기록했다. 한국사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위험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OECD 통계에서 한국의 꼴찌 분야들

-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 아동의 '삶의 만족도'** : 보건복지부가 '2013년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아동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유니세프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모델로 측정한 아동 행복지수에서도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 :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 불과한 압도적 꼴찌이다 (고등교육 국가가 자원해 주는 비율 최하위)
- **국민행복지수** : 2014년 기준 34개 회원국 중 33위다. 국민행복지수는 자살률, 조출산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평균수명 주관적 행복도, 환경오염 등에 가중치를 매겨 산정한다.
- **조세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2014년 기준 0.024%로 OECD회원국 27개 중 최저치다. 하지만 세후 빈곤율은 4위를 기록했다. 세금만 뺐을 뿐인데 빈곤국가가 된 것이다. 조세를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 **노조 조직률** : 노조 조직률은 전체 노동자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중이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3%이다.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8위. 단체협약 적용률은 꼴찌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체 내에 노조가 아예 없거나 가입할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가입으로 바꾸자! 누구나 노조하자!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9~10%(약 170만 명)다. 10명의 노동자 중 1명만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 규모와 힘으로는 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반노동 친기업 노동정책을 막아낼 수 없다. 60% 이상의 높은 노조조직률을 기록한 OECD 상위권 국가의 노동자들은 더 높은 고용안정, 높은 수준의 임금과 사회보장 제도, 안전한 일터, 노동시간 단축을 얻어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 조직률이 OECD평균인 29%(약 500만 명)만 되도 정부와 자본이 지금처럼 노동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면 노동자 대표를 정치권에 진출시켜 노동자·서민 중심의 법-제도개선과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살기 힘든 헬조선을 바꾸고 싶다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기 권리를 찾자. 그것이 우리 삶을 바꿀 첫걸음이다.

테러방지법 도입 후 벌어질 일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등 73인)

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① 상임위원의 위원장(국정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등 10인)

제15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등 10인)

제15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②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출·입국의 금지 또는 국내체류 연장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등 10인)

제36조(가중 처벌)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등 10인)

제22조(군 병력 등의 지원)

① 대책회의 의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이하 "군 병력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두원정공 노동자들의 다시 피어난 꿈

월화수목금금금...

죽어라 일만 했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20분 까지.
그리고 퇴근 못하고
2시간씩 잔업을 했죠

철야도 해요
명절 연휴에도
하루만 쉬고
다 출근했죠

노동

잔업

한달에 잔업 300시간하려면
12~13일은 철야를 해야 돼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하는거죠

힘들다

공장 들어왔을 때부터
회사 망한다는 소리를 20년 간 들었어요.
항상 어렵대요. 거짓말이었죠.

형이 먼저 나갈게.
너는 버텨.

세상이 망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나.
경쟁위기라는데...

회사가 어렵는데
노조도 할수있는게
없어

그러다 IMF 때 회사가 강제로 희망퇴직을 단행했어요.
나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직원이었던 식당, 경비 쪽도
되다 쫓아냈어요

식당노동자들이 해고 당하고 울면서 나가는데,
우린 멍하니 보고 있는거죠

민주노조 결성

그러다 결국 못 참겠어서
2002년에 민주노총으로 전환하고
첫번째 민주 집행부를 세웠어요.

저는 노동안전을 맡아서 활동했죠

유해요인 조사도 하고,
산재신청도 모으는데
현장 분위기는
정말 냉담했어요

아파도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
무감해지거든요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아프고.

근골격계 질환은
티가 안 나니까
아파도 눈치가 보여서
말도 못하는 거죠

예전엔 산재처리는커녕
공상처리도 안해줬거든요!

‘이게 민주노조인가?’

산재 승인도 받아내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작년 여름

결국 회사가 민주노조 손보겠다고
직장폐쇄 카드를 들고 공격했었어요

우리 집에도 안가고 여름휴가, 추석연휴 없이 공장만 지켰어요.

용역깡패가 밀고 온다는 소문도 무성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조합원들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놓지 않았죠. 후회없는 싸움을 하자면서.

조별로 나눠서 굉장히 많은 산재 투쟁을 했어요.

부회장이 산다는
타워팔리스타이주

두원그룹
다른 공장도 차고

두원공대도 갔죠

투쟁하러
가자!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자기 일로 생각한거죠

결국 회사는
노조 부수려 시작한 모든걸
철회했어요

10년 조합활동 힘들었던걸
작년에 모두 다
힐링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처럼 10년 넘은 기존 노조엔
신생노조 같은 활력이 없잖아요.

우린 변했어요.
다시 돌아본거죠!

고생했다
정말

제가 고맙죠
형님

요즘 탄압도 심하고 기성 노조들이 현장에서 힘 잃고 어려움이 많대요?
기본적인 노조활동도 잘 안되구요

다시 한번 노동조합이 우리에게 진짜 어떤 조직인지
돌아봐야 할것 같아요.

억지로 모여앉아있는, 그런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조직인지 말해요.

어느 순간 놓치면서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쟁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있기도
하구요.

물론 투쟁할 수 없을 만큼
압박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 노조 그만 하고
노예로 돌아가야죠.

민주노조운동이 꽃피기 시작했던때의 고민들을
많이 잊고, 덮고 사는건 아닐까요?

퇴근하면 TV에만 빠져있는 삶.

아침엔
정신없이
출근하고

각자의 일상에 아무 관심도 없이...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은 무엇이 아니라,
하면서 즐겁게. 우릴 서로 묶어주고, 삶을 생기있게 해주는
그런 조직.

그래야 우리도 살고,
내 일터도 사람냄새 나는 곳으로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경기북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인상

2월 말 여성노동자 한분에게 전화가 왔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쓸 때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했다고 싸인을 하라는데 좀 이상해요”

“저 말고 다른 직원들은 그냥 싸인 하라고 해서 싸인했는데 저는 이것저것 캐묻고 다음에 싸인할테니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안주더라고요”

전화를 한 여성노동자는 2014년 여름에 접어들 때 노동조합을 어떻게 만드냐고 지회사무실로 찾아왔던 분이다. 여성노동자 다섯 명(외국인 노동자 2명)과 남성 노동자 한 명이

지회사무실로 찾아왔다. 우리들이 즐겨먹는 뽕뽕국에 들어가는 완제품을 만드는 식품공장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24시간 뽕뽕국의 체인점이 여기저기 생겨나며 영세한 사업장이지만 급성장하고 있을 때였다.

최저시급에 평일에는 8시반까지 출근하고 저녁 7시까지 일하는데 토요일도 오후까지 매주 근무한다고 했다. 상여금은 없고 명절에 사장이 내기면 떡값을 20만원 정도 주는 모양새였다. 이 분들이 왜 노동조합을 만드려 했는지 글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공감할 것이다. 당시 10여명 정도가 일하는데 다들 나이는 50세 중반이었다. 사업장의 노동자 중 3

할이 외국인 노동자들이기도 하고 여러 상황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하지는 못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라 반갑기도 해서 근로계약서 중 생각나는 내용만 말해달라고 했다.

“연차를 빨간날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올해 최저시급을 나름 많이 인상해 시급이 올랐는데 연차휴가 17개 중에 5개를 제외하고 국공휴일로 대체하는 내용이었다. 회사의 속셈은 최저시급이 올라 임금인상이 되니 연차를 휴일로 대체하려는 것이었

다.

“아주머니 궁금한 점이나 속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사무실에 놀러오세요”하고 통화를 마무리했다.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 과연 이 나라 비정규직이 870만명에 불과할까? 지금 노동법만으로도 노동자들은 충분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악법을 밀어붙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생각하니 역장이 무너진다.

김도현 서울자부 경기북부지역지회 사무장

현장에서 쓰는 화학물질을 확인하자

인천과 부천에서 메탄올을 다루던 노동자 다섯 명이 실명위기를 맞았다.

핸드폰 전자 부품 중 알루미늄을 가공하는 공정에서 ‘메탄올’을 사용한다. 가공할 때 열을 식히고 제품의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 메탄올을 사용하는 것이다. 잘못된 마킹을 지울 때도 메탄올을 사용한다. 메탄올은 무색의 알코올 냄새가 난다. 호흡기계나 시신경 손상,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 중추신경계 억제를 가져오는 독성 물질이다.

우연히 드러난 메탄올 중독

1988년 15세의 소년이 병원에 후송됐다. 의사들은 감기 처방을 내렸다. 원인을 모르니 치료도 하지 못했다. 시름시름 앓아가는 소년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용한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했다. 수 없이 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어느 의사도 소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소년은 수은온도계를 만드는 공장을 다녔다. 공장에 다니지 수개월만에 수은 중독에 걸린 것이다. 소년은

수은 중독 진단을 받았고 얼마 안되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그 소년은 결국 눈을 감았다.

메탄올에 노출된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4명의 노동자가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났다.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 메탄올 중독을 밝혀냈지만 이는 우연에 가깝다. 아마 1명의 노동자가 시신경 장애로 후송됐다면 ‘원인 불명 시신경 장애’ 진단을 받고 원인물질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장에서 쓰는 화학물질을 확인하자

현장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쓴다. 잘못된 도장과 마킹을 지우는 리무버, 도금이나 도색 전 쓰는 세척제, 가공할 때 뿌리는 절삭유나 가공유, 본드, 도료를 얇게 펴주는 경화제(신너), 녹쓸지 말라고 뿌리는 방청유, 사출기계 등 금형에 뿌리는 이형제 등 종류도 다양하다.

첫 번째, 덜어쓰는 용기 말고 본래 용기를 살펴보자. 용기에는 제품명과 화학물질 성분명이 적혀있다. 또한 X표시나 해골표시 등 경고표시 등이 그려져 있다.

두 번째, 본래 용기에 적힌 판매업체(유통업체)에 전화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요구하자. 화학물질을 팔 때는 반드시 해당물질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같이 제공해야 한다. 회사에 요청하기 어려우면 판매업체에 요구하자.

세 번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명시한 ‘성분명’, ‘유해위험성 정보’, ‘독성 정보’, ‘응급상황대응 방법’ 등을 숙지하자.

네 번째,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지역 ‘권리찾기 사업단’에 신고하자. 사업주는 화학물질에 따라 예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측정(얼마나 노출되는지), 특수건강진단(혹시 화학물질에 의한 증상들이 없는지)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노

출되지 않도록 설비를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장안석 인천권리찾기사업단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하세요!

제조업에 파견업체 통해서 근무?
정규직은 상여금 400% 파견은 0%?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휴입시, 휴입수당(70%) 미지급?
갑작스런 해고통보?
갑작스런 전환배치?

불법!!!



언제든지 상담하세요!

“임금체불, 산업재해, 연차, 부당해고, 부당한 대우, 노조설립 등 전화주세요”

북부 권역 인천지역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
032-525-0497 labor0497
부평노동법률무료상담소
032-525-1802

남부 권역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119
070-4756-0119 labor119
남동노동법률무료상담소
032-466-1802

증가하고 있는 고소 작업대 사망 사고

조선소에서 올 2월 중순 고소 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그 노동자가 하던 작업이 원래 2명이 하던 작업이라고 했다. 사고 당일 혼자 작업하다 추락 사망한 것이다. 사업주의 생산성 증가와 효율성 강요 그리고 이윤추구 때문에 결국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한 것이다.

고소작업대는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한다.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설비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사용하는 기기 특성상 문제가 일어나면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

2013년 총 13건의 고소 작업대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2014년에는 총 23건의 사고가 일어나 그 중 24명이 사망했고, 7명

이 부상을 입었다.

고소 작업대로 인한 사고는 협착, 추락, 낙하, 붕괴 등이다. 실제 사고 사례를 보면 고소작업대 상승 및 하강 작업 중 연결편이 부식지며 작업대가 뒤집혀 사망하거나 고소 작업대를 이용해 천장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갑작스런 작업대의 과상승으로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또, 고소 작업대 자체가 넘어지는 사고로 사망한 사례. 외벽 도장 작업도중 붐이 부식져 추락사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사고들을 막기 위해 고소작업대는 엄격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고소작업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도 고소작업대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게 했다.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월
재해건수		70	16	14	13	23	4
재해자수 (명)	계	92	22	18	16	31	5
	사망	76	17	16	15	24	4
	부상	16	5	2	1	7	1

표1)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중.

고소 작업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과상승 방지 장치 설치, 붐 길이 센서 설치, 안전난간 유지, 경고 장치 설치, 와이어로프 및 체인의 안전을 준수, 권과 방지 장치 설치, 유압식의 경우 압력 이상 저하 방지 조치, 조작반 스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조치, 바닥과 고소 작업대의 수평유지, 갑작스런 이동을 막기 위한 아웃트리거 사용, 이동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위의 열거한 사고들이 고소작업대의 부품 및 기기고장, 과부하 상승 방지 장치 미설치 및 고장, 고소작업대 지지하는 지반의 침하, 안전난간 미설치, 와이어로프 파단 등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고소작업대 사고는 명백히 사업주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다.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 조치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할 때 필요한 점검을 해야한다.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

장치와 방호장치가 해제 되었거나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난간이 적절한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작업을 중단하고 개선 요구를 해야한다.

둘째,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 지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작업할 곳의 지형과 지반에 대해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후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는 갑작스런 이동을 막기 위해 아웃트리거나 브레이크를 확실히 사용해야 한다.

셋째, 고소작업대를 포함한 기계기구 등 수리 점검시 갑작스런 상승 혹은 하강으로 협착, 추락을 당하지 않도록 점검 수리중 표시를 붙이고 다른 작업자들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소작업대는 안전인증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2009년 7월1일 이후 출고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은 위험한 일이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다면 단호히 작업을 거부해야한다. 이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마창가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된 거 아니었나요?

산업연수생 제도는 국내 외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은 제도다.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산업연수생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제도라고 아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해외투자연수생 제도는 기업의 현지법인을 통해 파견된 실제 연수만 허용한다는 명분으로 살아남았다.

김해지역 한 업체가 인도 현지법인에서 연수생으로 초청한 노동자를 매월 15만원을 주고 일을 시켰다. 또한, 그 노동자가 3도화상을 입은 산재사고를 입었지만 회사가 모른 척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생 제도가 여전히 살아있던 것이다.

주야 12시간 고무사출기 조작이 무슨 연수야?

인도의 현지법인에서 5개월 일한 뒤 작년 3월 한국에 온 라빈드라(가명)씨는 한국 모기업에서 선진기술을 배운다는 ‘연수’ 목적으로 입국했다. 주야간 2교대,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면서 휴일은 한 달에 고작 두 번 뿐이었다. 한국의 ‘연수’가 현지법인의 ‘노동’과 다른 점은 인도에서는 사출기 한 대를 한명이 조작했지만 한국에선 한 명이 사출기 세 대를 감당한 점이다. 라빈드라씨는 한국에서 일한 지 한 달 만에 손과 손목에 큰 화상을 입었다.

근로자가 아니라 산재보상도 안된다

고?

회사는 라빈드라씨 산재사고에 대해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지 않았다. 그의 소속이 한국 회사가 아닌 인도 현지법인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라빈드라씨는 김해지역 인권단체에 도움을 청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냈다. 고용노동부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분증 압류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회사의 부당한 처우보다 더 큰 문제가 드러났다. 한국의 법과 정부, 행정기관의 일처리 방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라빈드라씨가 ‘국내사업장 소속’이 아닌 해외현지법인 소속 근로자로 기술연수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파견

됐기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했다.

현대판 노예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하라

이런 상황에서 회사 측은 라빈드라씨를 강제출국 시키려 했다. 라빈드라씨는 추방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서 도망나와 인권단체와 함께 문제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부울경지역 이주민 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한편 산업연수제 폐지를 촉구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기본중의 기본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상법 조차 피해가려는 현대판 노예제다. 이 참에 그 불씨를 완전히 꺼뜨려야 한다.

이주민과 함께

버스 기다리면서 ‘바지락’ 한번 입어보세요

충청북도에서 비정규직 노동조건과 실태를 고민하는 단체들이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작년에 만들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충북지역 차별철폐를 위한 노동자 대행진’을 시작으로 공단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야외선전전을 시작했다.

공단노동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기 위해 우선 노동자들이 출근 버스를 타는 길목과 정류장을 찾아야 했다. 시행착오 끝에 충북 성모병원 사거리 인근 출근버스 정류장을 주요장소로 정했다.

청주 외곽 및 인근지역으로 나가는 출근버스가 가장 많이 몰리는 이곳에는 아침마다 6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출근버스를 탄다. 운동본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혹은 시기별 주간을 정해 출근하는 공단 노동자들을 만난다. 금속노조 공단 노동자 신문 ‘바지락’과 지역 노동인권센터 홍보물 등을 배포한다. 이제 우리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분도 있다.

출근시간 선전전을 정기적으로 나간 정성이 통한 것인지 노동상담이

늘었다. 한 분은 선전물 하나를 꼬깃꼬깃 꺼내 놓으며 ‘문제 생기면 연락하겠다고 챙겨왔다. 실제 오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로 상담을 시작했다.

2015년 전국적으로 알려졌던 ‘에버코스’ 산재은폐 노동자 사망사건이 있었다. 운동본부는 그 당시 공단 노동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며 ‘에버코스’ 출근버스 정류장에서 그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날이 추워지면 커피와 함께 바지락신문을 배포하며 출근 버스를 기다리는 노동자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모닝커피타임을 연 것이다.

처음은 쉽지 않았다. 지역공단 노동자들은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거나 출근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기가 어렵다. 일단 출근하면 노동자들이 식사, 휴식 등 모든 일을 공장 안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공단에 사람 발자국이 찍힐 일이 없다. 출퇴근 차량을 상대로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아쉬움이 많았다.

충북에서 공단이 가장 집중된 진

천, 음성, 오창 등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도 만나야한다는 고민도 있었다. 결국 출근버스 정류장에서 선전전을 시작했다. 무노조 무권리 상태 노동자에게 다양한 권리를 알리는 사업을 시작하고 정착시켰다는 것과 그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우게 됐다는 점 두 가지가 성과다.

공단 한 곳에 민주노총 사업장 하나 있는 경우도 드물 정도다. 그 정도로 이 지역 수십만 공단노동자들이 무노조 무권리 상태에 있다. 노조 없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기본 기능을 제공하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노동자권리 찾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알려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전략적으로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기획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자기 사업장이 있는 공단 선전전을 시작했다. 누구나 노동조합하고, 누구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를 모두 함께 한다면 만들 수 있다.

김성영 /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바지락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주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선정된 원고는 '바지락'에 실리고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원고 접수 및
edit@labor.org

●무료 구독 신청
각 지역 상담전화로 신청

